

## 61 폐차장 견인 근로자에서 발생한 규열

성별	남성	나이	50세	직종	폐차 견인공	직업관련성	있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는 201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중 2015년 7월 11일 오후 6시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소견 있어 지역 병원에서 입원 중 항생제 사용하였으나 호전 없어 대학병원 전원하여 입원 중 2015년 7월 24일(질병관리본부 의뢰일) 실시한 혈청 규열 항체가 검사에서 IgG 1:2,048 이상, IgM 1:2,048로 항체가의 높은 증가 보여 상병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견인 작업 도중 축사 인근에 버려진 차량 등을 견인하면서 원인균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8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1월 12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2014년 9월 19일부터 근무하면서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 까지(점심시간 12시~13시)였다. 견인 업무는 1인 출장 업무로 견인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5톤 차량으로 운전하여 차량에 싣고 폐차장에 입고하거나 공업사, 카센터 등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폐차 견인 시 착용하는 보호구는 면장갑 외에 없으며, 견인 의뢰 장소에 도착하여 차주가 맡긴 열쇠로 직접 견인할 차량을 운전하거나 견인차량에 걸어서 운반하였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열쇠가 없는 경우는 문을 따고 차량 내부에 들어갔다.

최대 감염 가능 기간인 2015년 6월 11일부터 2015년 7월 8일 까지 근로자가 견인 업무를 수행한 현황은 70여 건 가까이 확인하였으나, 견인 현황표에 견인 지역의 자세한 주소는 기록되어있지 않았고, 근로자 또한 차량 종류에 따른 견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정확한 견인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견인차 내부의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혹은 견인차량 내 블랙박스 장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확인 결과 2015년 10월 이후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바뀌었고, 과거의 기록이 모두 지워지고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일반적인 견인 지역은 진천, 음성, 천안, 청주 보은 등의 지역이었다.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이 없이 방치된 차량 폐차 의뢰 시 길가 및 산속 등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며 이는 1년 평균 50대 가량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량은 축사가 있는 농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산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오래 방치된 경우는 차량 안에 풀이 자라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폐차 차량 내부는 청소가 되어있지 않거나, 차량 안에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투기되어 방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질환

### 4 유해인자

- 생물학적 요인(리케차)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당뇨,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고 2014년 9월 19일 입사하여 근무하는 중 2015년 7월 11일 오후 6시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소견 있어 지역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항생제 사용하였으나 호전 없어 대학병원 전원하여 불명열에 대한 입원 중 2015년 7월 24일(질병관리본부 의뢰일) 실시한 혈청 규열 항체가 검사에서 IgG 1:2,048 이상, IgM 1:2,048로 항체가의 높은 증가 보여 상병 진단받았다. 해외 여행력은 없으며, 발병일 하루 전인 7월 10일 직장 회식에서 육회를 먹은 것 외에는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생고기 및 부산물 섭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함께 식사를 한 동료 근로자들에서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헌혈이나 수혈 기록은 없으며, 진드기 교상 경험은 없었고, 가축을 다룬 경험이나 분비물을 접촉한 등의 경험은 없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동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종으로는 농축산업 조사자, 도축업 관련자, 방역사 등이 있으며, 감염경로는 호흡기, 오염된 우유나 음식 섭취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3~6월에 많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방문하는 지역에서 사람 및

동물의 집단 발병이 확인되지 않았고 감염경로를 역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감염 기회의 확률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업무도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끝.